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김나경	소속(학부/과)	기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나이아가라 컬리지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영어공부(토익/오픽/영어로 영화 반복해서 보기 등)를 꾸준히 하며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 공지를 보자마자 신청을 했고, 여러 나라 중 캐나다가 영어회화를 배우기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판단되어 나이아가라 컬리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서류준비는 유학원 담당자분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따로 미국 온라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발급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학원 담당자분이 나눠주신 종이에 따라 하면 약 70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권 구입은 저같은 경우에 학교 직원이 안내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결제했는데, 본인이 원하시면 따로 알아보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 수강신청은 따로 할 필요 없었고, 저는 홈스테이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도 따로 할필요 없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 크기는 금오공대보다 훨씬 커서 (체감 8배) 초기 한 달간은 교실을 찾느라 매일 헤맸습니다.^^
- 대학교가 시골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 # 장점 : 시끄럽지 않고 여유롭다. 돈 쓸 일이 적다. 친구들이랑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울릴 수 있다.
- # 단점 :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심심하다. 뭔가 하려면 버스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한다.
- 기후 : 제가 캐나다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어서 여름에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았고 가을도 좋았고, 겨울도 좋았습니다.
- # 여름 : 온도는 우리나라 가을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햇살이 엄청 썩니다. 선글라스 필수
- # 가을 : 우리나라 가을과 같습니다. 단풍나무 최고
- # 겨울 : 저는 12월 중순까지만 살다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했는데, 홈스테이 가족 말씀으로는 1월 2월달에는 진짜 정말 춥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 겨울과 비슷했습니다.
- 웰랜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책, 가끔가다 외식, 슈퍼마켓 장보기, 친구들이랑 팀호튼에서 수다 떨기 가 최대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수업은 총 5개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그램머(다 영어로 영어 배우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 리딩 : 주로 선생님께서 글을 주시고, 그것을 읽고, 모르는 단어와 표현 설명해주시고, 읽은 글 요약하고, 글 관련 문제 푸는 수업입니다.
- 라이팅 : 한학기에 에세이를 총 2편을 쓰고, 평소에는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 올바른 문장은 어떤 것인지를 주로 배웁니다.
- 스피킹 : 교과서에 나온 주제를 바탕으로 프리토킹을 하고, 교과서에 한 챕터마다 12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학기에 발표 과제가 2개 있습니다.

(스피치/세미나)

- 리스닝 : 선생님께서 오디오 파일을 3번 들려주시면 그것을 노트테이킹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수업입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 생활비 :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용 내역 : 외식 (10만원) 쇼핑 (15만원) 카페/간식 (10만원) 핸드폰(3만원) 교통비(2만원)

- 홈스테이 비용 : 한 달에 750캐드(약 65만원)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단체로 체험학습을 가는 활동이 있습니다. EAP 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에요.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 전 다른 분들의 보고서를 읽을 때는 너무 재밌었고 기억에 남았다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한 것에 비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물론 몇몇 좋은 활동들도 있었지만 10개가 있다면 3개 정도만 괜찮았고, 나머지는 정말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제 친구들도 동의한 내용이니깐요.) 활동이 안 좋더라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든 재밌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은 도서관과 식당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면 헬스장 추천드립니다. (저희 반 친구들 중 몇몇은 헬스광들이었어요.)

저는 한 학기만 교환학생으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동아리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 식사 : 캐나다는 주식이 빵, 고기, 감자, 샐러드 등입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 입맛이어서 약 4개월 동안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인트케서린/토론토) 한국마트(갤러리아/딘딘)에서 한국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업 : 캐나다는 주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수업을 합니다. 한국과 정반대인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초반에 교수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업에 참여한다는 기분이 들면서 말이 많아지고 수업이 재밌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 서비스 : 캐나다에서는 어디를 가든 처음 만나면 Hi, honey! How are you? 하고 물어봐 주십니다. (카페/슈퍼마켓/식당/버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친절과 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 식당 : 제일 적으면 15% 많으면 제한 없이 팁을 줄 수 있는데, 외식을 하면 일인 당 기본 20캐드입니다. 나가서 먹으면 무엇을 먹든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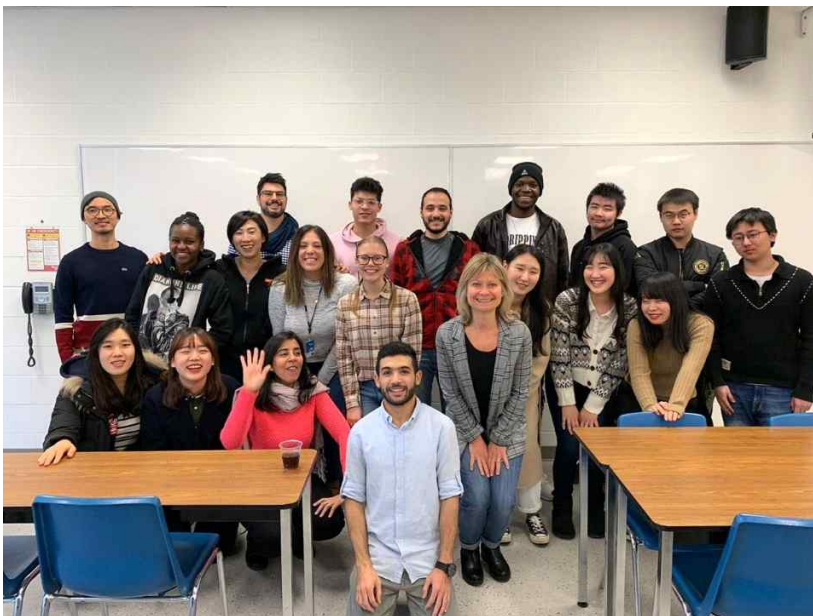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 여러 문화의 차이점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과 마음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 캐나다의 가족문화와 가정교육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차이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 캐나다의 수업 방식과 우리나라의 수업 방식의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말 친절한 캐나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배려심을 배웠습니다.
- 정말 아름답고 멋지신 교수님들과 반 친구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과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가짐, 말하는 방식, 예의, 배려,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 영어를 생활 속에서 배우면서 점점 발전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너무 힐링되었고, 여행의 참 즐거움을 깨닫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지내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맞는 친구들과 영어로 얘기하고, 혼자서 영화 보면서 표현을 공부하는 시간이 쌓여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항상 "영어로 완벽히 얘기해야지, 실수할 바에는 말 안하는 게 나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저로서는 이번 경험이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실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다 틀려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무서워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친구들, 교수님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마지막 2일 동안 만날 때 마다 울었습니다. 그만큼 아쉽고 행복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교환학생 4개월은 죽을 때까지 못잊을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kakaotalk ID : crazy0823)



[마지막 수업]



[마지막 파티]



[눈사람 만들기]



[홈스테이 마지막 날]



[4형제랑 리코랑 옹기종기]



[리코랑 나이아가라 폭포 앞]



[친구들이랑 파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눈의 여왕과]



[Karaki 랑 Culture Sharing Day]



[친구들이랑 Home party]



[친구들이랑 Hambgr 에서]



[막내 뽀뽀]



[마지막 수업 날 유리랑]